

후지코토 풍작오도리

후지코토 풍작 춤은 400 년 동안 매년 9 월에 후지사토 마을에서 행해졌습니다. 주요 춤인 고마오도리(駒踊り, 말춤)의 기원은 무장 사타케 요시노부(1570~1633 년)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요시노부는 명문 호족인 사타케 가문의 수장으로 대국이었던 히타치국(현재의 이바라키현)의 영주였습니다. 그러나 1600 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 년)와 싸워 이에야스가 전투에서 승리하자, 요시노부는 더 작은 영지인 구보타번(현재의 아키타현)으로 이동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보타번으로 가는 길에 요시노부의 가신들은 춤을 추며 요시노부의 사기를 북돋우려 했습니다. 이 춤이 후에 후지코토 풍작오도리가 된 것입니다.

현대의 춤 연출에서는 고마오도리의 무용수들은 정해진 안무를 통해 싸우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마을 주민 20 명 이상이 무사의 갑옷처럼 보이는 정교한 의상을 입습니다. 허리에 두른 벨트 같은 장치가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며, 어깨에는 하네라고 불리는 큰 어깨 갑옷이 달려있습니다. 무용수는 춤을 출 때 하네를 자신의 얼굴 쪽으로 부딪힙니다. 매우 격렬하게 춤을 추기 때문에 **춤이 끝나면** 귀나 뺨에 베인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지사토마치의 춤은 아키타에서 가장 격렬한 고마오도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마오도리에 이어서 시시오도리가 펼쳐집니다. 일본어로 ‘시시(獅子)’라 불리는 양식화 된 사자 복장을 한 3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춥니다. 사자는 전설 속의 수호 사자이며, 일본의 종교 축제에서 사자춤은 관례적으로 행해집니다. 후지사토에서 펼쳐지는 시시오도리는 사랑의 삼각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사자(파란색 의상)와 암사자(빨간색 의상)가 함께 여행하고 있는데 검은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검은 사자는 암사자를 빼앗아가고, 수사자는 암사자를 찾으러 갑니다. 수사자는 검은 사자와 싸우고 암사자는 수사자의 곁으로 돌아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무용수가 하나의 사자를 연기하는데, 입과 머리를 움직이며 험령한 형견 의상 속에서 몸은 춤을 춥니다. 사자 무용수들의 춤이 끝나면 다시 고마오도리가 시작됩니다.

북 연주자와 피리 연주자가 동행하면서 춤이 표현하고 있는 전장을 연상시키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하루 종일 무용수들은 마을을 돌며 춤을 추고 마지막으로 아사마 신사에서 장단 소리가 올라옵니다.